

기고

윤영민 화순군의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해 본다

무등산권이 지난해 4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다. 화순군과 광주시, 담양군 일부 지역이 포함되며 우리지역 국립공원, 적벽, 서유리 공동화석지, 고인돌공원, 운주사 등이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게 됐다.

세계지질공원은 과학적 중요성, 희귀성, 시각적인 아름다움, 교육적 가치 등을 지닌 지질유산지역으로 지질학적 중요성 외에 생태학, 고고학, 역사,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닌 특정지역이다. 세계유산(World Heritage),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 제도에 해당하지만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달리 행위 제한이 적고 보호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2018년 기준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37여 개국에 137개 이상의 세계지질공원이 있다. 무등산권이 전 세계적으로 137번째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국내에서는 제주도(2010년)와 경북 청송(2017년)에 이어 3번째다. 특히 우리지역의 화순적벽은 이서면 창랑리·장항리 일원에 형성된 경승지로 명성이 자자하며, 동북천 상류인 창랑천을 따라 무려 7km에 걸쳐 있는 수려한 절벽군(群)이다. 물염적벽, 창랑적벽, 노루목적벽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노루목 적벽은 화순적벽의 대표로 꼽히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웅장함이 특징이다. 지질학적으로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층으로, 산성용암과 적색세일층(진흙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층)이 수직 절벽을 이뤄 외형적으로 적색이 발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화순적벽은 2016년 10월 화순 8경 중 제1경에 선정되며 이어 2017년 2월 적벽의 아름다움과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청이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112호로 지정할 바 있다. 또한 서유리 공동화석지는 북면 서유리에 위치한 공동발자국 화석산지로

중생대 백악기(1억년전)의 육식공룡(수각류)의 발자국이 많은데, 최소한 5마리 이상의 활동흔적이 관찰될 뿐만 아니라 육식공룡이 일정한 간격으로 걸었던 흔적이 단일지역 안에서 매우 길고도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1마리의 보행렬이 40m거리로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것이다.

2007년 11월 09일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487호로 지정되었다. 남해안 공동 화석지에 포함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었다.

고인돌공원은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를 잇는 보검재 계곡을 따라 위치하며, 5km의 계곡을 따라 효산리에 277기, 대신리에 319기 등 총 596기의 고인돌이 밀집·분포하고 있다. 탁자식과 비둑관식, 개석식(蓋石式)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원매바위)이 있고, 뽕개돌을 떼어낸 고인돌 채석장 흔적도 남아 있다. 지난 2000년 12월 화순과 고창, 강화도의 고인돌 유적이 세계 유산으로 지정됐다.

운주사는 화순읍에서 서남쪽으로 약 2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태산을 중심으로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운주사의 창건과 천불전탑의 건립은 통일신라말 도선국사에 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선국사가 풍수지리설에 의거 이곳 지형이 배형으로 되어 있어 배의 돛대와 사공을 상징하는 천불과 천탑을 세웠다 하여 흔히 천불전탑이라 불리운다. 2017년 1월 24일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이란 이름으로 천불전탑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됐다.

무등산권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이름을 올린 것은 수려한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지질학적·역사문화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국내 및 해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화순군 관광자원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세계에 알려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적으로도 지질공원 인프라를 통한 고용증대와 유네스코의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홍보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며 세계적인 브랜드로 지역사회의 자부심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후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의 유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군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로 부탁드리며, 문화유산 보존 교육 및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직간접적인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해 본다.

社說

닥터헬기 이착륙 자유로워야

위급한 응급환자를 적시에 이송할 수 있게 관계 당국의 공조로 응급의료 전용 헬기(이하 닥터헬기)가 필요한 곳에는 어디서나 이착륙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니 기대가 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 당국은 이른바 '비(非)인계점'을 활용해 닥터 헬기가 필요한 장소 어디서나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닥터헬기 운용상 빚어진 문제를 개선해 응급의료의 접근성과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닥터헬기는 현재 국내에서 환자를 태울 수 있는 안전한 장소(인계점)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는 이착륙하지 못한다.

인계점은 응급상황에서 닥터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게 지정된 공유지나 사유지를 말한다.

2018년 기준으로 인천·강원·충남·경북·전남 등에 총 828곳

의 인계점이 있다. 이 중 밤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전체 10% 안팎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도서산간 지역 응급환자의 치료·이송을 위해 닥터헬기를 도입했지만, 이런 인계점을 찾지 못해 출동이 기각·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닥터헬기 임무 중단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이착륙장 사용 불가' 사유로 출동이 기각되거나 중단된 사례는 80건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61.3%가 비인계점이라는 이유였다.

복지부는 이처럼 인계점이 아 니라는 이유로 닥터헬기가 이착륙하지 못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비인계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생명에 앞서는 일은 없기 때문이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交 友 投 分

交 友 投 分

▷ 뜻: 벗을 사귄 때에는 서로가 분에 맞는 사람끼리 사귀어야 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어르신 운전 사전 건강확인 생활화 해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사고 통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은 무려 150%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인과적 현상일 수 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2018년 기준 14.3%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고령운전자의 사고 원인은 대개 노화로 인한 신체능력 저하에서 비롯된다.

대표적으로 인지능력 저하, 정지해 있는 물체를 파악하는 능력인 정지시력 및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시각 능력인 동체 시력 저

하가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적성검사를 3년마다 받도록 함으로써 인지능력 저하, 질병 등 운전전에 위험을 끼치는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갱신 전 고령자 교통사고 사

례, 개정된 도로교통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는데, 고령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운전자들을 위한 새로운 교통법규 마련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노력도 중요하지만,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자신의 신체능력을 맹신해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안전센터장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details.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We welcome your comments) with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featuring two elderly people and a message about mutual respect and care.